

#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적용실태

Parental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Traditional Korean Play Songs for Infants

엄 정 애  
Ohm, Jung Ae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arental perceptions and use of traditional play songs for infants by parent's age and gender. The 464 subjects living in Daejeon City provided data via questionnaires and recorded tapes. Of 13 play songs for infants, parents were really acquainted only with Jjak-jjak-kkung, Do-ri Do-ri, Gon-ji Gon-ji, and Jam-jam. However, most parents thought traditional play songs are important for the education of the whole child. Mothers and parents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considered traditional play songs to be more important than did fathers and parents in their twenties. Though infants liked traditional play songs, most parents didn't use them with their infants because parents knew few traditional play songs and they had little time to play with their infants. Lack of time was a more serious problem for fathers than for mothers.

## Key Words

놀이(play), 놀이노래(play-song), 민족정서(ethos)

## I. 서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전통사회는 독특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그 사회의 시대적, 문화적 특수성이 낳은 각종 놀이와 노래를 가르치면서 어엿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키우게 마

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곳곳에서 유아들이 즐기는 놀이나 노래는 나라마다 언어와 신체표현의 차이는 있을망정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유아들의 꿈의 세계는 같은 것이다. 유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한국의 선조들이 생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활경험에 의해 창조해낸 전래놀이노래는 옛날 유아로부터 오늘날의 유아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온 놀이노래로, 민속 특유의 정서와 풍류가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유아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전원범, 1995). 전래놀이노래는 정신문화의 소중한 유산이며 유아의 성장발달에 없어서는 안될 미적, 창조적, 교육적 소산물이다.

전래놀이노래가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전으로 이어져 오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또는 고도로 발달된 서양문화의 잠식에 의해 점차 소멸되거나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마저도 구식 놀이방법이라 하여 도외시키고 있다(김숙경, 1997). 특히 최근 들어 세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고유한 한국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외래의 것을 무조건 수용하여 흡수, 동화시키려는 경향이 한국 사회에 강하게 대두되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자들은 고유의 민족정서를 어린 시절부터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체적 한국의 모습과 한국인 상을 찾으려는 노력이 최근 현저해진 것이다(홍웅선, 1989). 유아교육계에서도 한국 유아교육의 모습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반성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유아교육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1992, 1998)의 유아교육과정 개편 내용에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으며, 1993년에는 유아교육기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전통놀이를 선정하여 이를 교육활동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룬 유아 전통놀이 교육활동 지도자료(이은화, 이경우, 이정환, 1993)가 개발되었다.

옛 것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듯이 전래놀이노래의 적극적인 체험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계승시키고 또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인은 한국의 전래놀이노래를 보전하며 이를 민

족 놀이와 음악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전래놀이노래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전통놀이 관련연구(유안진, 1981; 김경희, 1986; 이기현, 1987; 이경우, 이은화, 1987; 이은화, 1989; 신동주, 1998; 엄정애, 2000)와 전래동요 관련 연구(정미라, 1992; 김세희, 1994; 이경우, 이은화, 1994; 이지연, 1995; 전원범, 1995; 박수정, 1996; 김정준, 1996; 이희경, 1996; 장은주, 1997)로부터 그 맥을 찾아볼 수 있다. 두 부류의 연구는 모두 노래와 놀이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들이며, 대다수의 연구들이 유치원 현장의 만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노래와 놀이를 연결시킨 한국 전래놀이노래에 관한 연구로는 단지 김숙경(1997)의 연구, 이순형(1991, 2000)의 연구와 김시아(1998)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김숙경(1997)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던 전래놀이노래와 그에 따른 놀이방법을 각 지방을 다니면서 채보하여, 전래놀이노래가 유아의 성장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전래놀이노래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이순형(1991, 2000)은 유치원시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남한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노래 가사의 실태와 전통성을 조사하였으며, 더불어 10세에서 20세까지의 중국 연변 조선족 어린이들의 놀이와 놀이노래를 조사 연구하였다. 김시아(1998)는 전래놀이노래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치원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전래놀이노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치원에서 청소년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래놀이노래는 만3-5세 유아들이나 그 이후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아의 성장발달을 위해 영아에게 적절한 전래놀이노래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김숙경, 1997). 영아들은 스스로 대부분 부모 또는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놀이를 진행

하며 놀이노래를 즐기게 된다. 특히 한국에는 단동치기 십계훈이라는 것이 있다. 단동치기란 한국의 시조이신 단군왕검의 혈통을 이어받은 영아들에게 단군왕검의 훈시에 따라 기초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십계훈은 만 1세도 못된 영아들에게 훈교하던 열 가지 훈치로 인간이 되어서 지켜야 할 계도를 가르친 것이다. 영아에게 아름다운 진리의 말을 들려주면서 손과 몸짓을 하게 하여 교훈하는 사람도 즐겁고, 영아들도 어려서부터 체조를 하여 육체의 활성화는 물론 정신건강을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기 때문에 안정된 가정에서의 육아 양육방식이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모의 언행 및 인생철학은 영아의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함께 해주는 전래놀이노래는 영아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정서적 발달 이외에도 우리의 민족정서를 영아들에게 갖 들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옛 전통과 영아를 위한 전래놀이노래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볼 때 문화적 가치를 지니면서 교육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전래놀이노래는 영아기 때부터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아들에게 고유의 민족정서를 어린 시절부터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전래놀이노래를 효과적으로 가정

에서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전래놀이노래를 포함한 우리의 전통놀이문화는 오늘날 젊은 세대의 삶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한국의 고유 문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외래의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 이에 흡수 또는 동화되려는 경향이 우리 사회 젊은 세대들에게 강하게 반영되어있기 때문이다(이은화 외, 2000).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시되어지면서(허선자, 1992) 부모로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전래놀이노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나, 한국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전래놀이노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에서 적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으로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과 적용실태를 조사해보고, 이러한 인식과 적용실태가 부모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는 부모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에 대한 부모들의 적용실태는 어떠한가, 이는 부모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0년 3월 현재 대전에 거주하면서 만 1세 이하(출생 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 464명이었다. 연구대상은 2000년 3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대전 시내 어린이집 중 만 1세 이하의 영아가 있는 125곳을 선정하여 그 곳에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64명의 연구대상 부모 중 어머니는 298명, 아버지는 166명이었다. 부모의 연령분포는 20대 부모가 201명, 30대가 164명, 40대 이상이

99명이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지와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와 놀이방법이 설명으로 녹음된 오디오 테이프였다. 부모용 질문지 외에 오디오 테이프를 사용한 이유는 미리 선정된 전래놀이노래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다. 즉 전래놀이노래의 제목만으로는 연구대상 부모들이 노래와 놀이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전래놀이노래가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오디오 테이프를 질문지와 함께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작성된 질문지의 안면 타당도 검증은 위해 전 통놀이와 전래동요에 관심이 있는 유아교육 전공자 2명을 전문가로 선정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위해 만 1세 이하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10명에게 질문지와 테이프를 배부하여 각 문항 의미전달의 정확성과 질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참고로 일부 문항의 내용을 수정한 후 6문항의 최종 질문지와 오디오 테이프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질문지는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3문항)과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에 대한 부모들의 적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질문지 문항 작성 시 영아를 위한 전래놀이노래의 종류는 김숙경(1997)의 연구에서 영아기 전래놀이노래로 발굴되어진 13가지 놀이노래를 기본으로 하였다. 13가지의 영아기 전래놀이노래는 각각 제목, 노래, 놀이 방법 순으로 오디오 테이프에 차례로 녹음되었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2000년 3월 20일에서 4월 2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625부의 질문지와 오디오 테이프가 대전 소재 125개의 어린이집에 5부씩 배부되었으며, 이 중 511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통계처리가 가능한 464부에 대하여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통계처리 과정에서는 각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부모의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밖에 질문지에 자유응답한 기타의 내용은 유목별로 분류하여 종합, 정리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전래놀이노래가 무엇인지 선정된 13가지 놀이노래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제시된 13가지 전래놀이노래 중 노래와 놀이방법을 모두 알고 있는 부모의 수를 각

각 분석한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에 의하면 부모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영아기 전래놀이노래는 ‘ 짹짹’이며, ‘도리도리’, ‘곤지곤지’, ‘잼잼’도 연구대상 부모들의 9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놀이노래는 ‘따로따로’(56.0%)만을 제외하고 이는 경우가 총 응답자의 반 수가 되지 않았다.

<표 1> 영아기 전래놀이노래를 알고 있는 부모들의 수 빈도(%)

전래놀이노래의 종류	안다	모른다	계
도리도리	445(95.9)	19(4.1)	464(100)
짜짜꿍	458(98.7)	6(1.3)	
곤지곤지	434(93.5)	30(6.5)	
잼잼	421(90.7)	43(9.3)	
고네고네(꼬득꼬득)	176(37.9)	288(62.1)	
등개등개	154 (33.2)	310(66.8)	
불아불아(불무불무)	141(30.4)	323(69.6)	
따로따로	260 (56.0)	204(44.0)	
방아야 방아야	66(14.2)	398 (85.8)	
등개등개등개야	119(25.6)	345(74.4)	
감빡과 반짝	26 ( 5.6)	438(94.4)	
불불불어라	52 (11.2)	412(88.8)	
닝가닝가닝가야	164(35.3)	300(64.7)	

<표 2> 부모와 함께 하는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빈도(%)

	아버지	어머니	20대	30대	40대	전체
중요하다	143(86.1)	282(94.6)	176(87.6)	156(95.1)	93(93.9)	425(91.6)
중요치 않다	23(13.9)	16(5.4)	25(12.4)	8(4.9)	6(6.1)	39(8.4)
계	166(100.0)	298(100.0)	201(100.0)	164(100.0)	99(100.0)	464(100.0)
통계치	$X^2 = 9.9, df = 1, p < .01$		$X^2 = 7.6, df = 2, p < .05$			

부모와 함께 하는 영아기 전래놀이노래를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464명의 부모들 중 91.6%에 해당되는 425명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부모의 성( $p < .01$ )과 연령( $p < .05$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2> 참조). 부모와 함께 하는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의 중요성에 대해 아버지(86.1%) 보다 어머니(94.6%)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20대 부모들(87.6%)이 30대(95.1%)나 40대 부모들(93.9%)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렇다면 부모와 함께 하는 영아기 전래놀이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에 의하면 부모들의 응답은 '영아의 전인 발달을 위해(67.5%)', '영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21.6%)', '한국의 전통 문화계승을 위해(10.9%)'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또한 부모의 성( $p < .001$ )과 연령( $p < .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수 이상의 아버지들은 영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전래놀이노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영아의 전인발달을 위해 전래놀이

노래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부모 연령의 경우, 40대 부모들은 한국의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전래놀이노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0.8%

나 되었으나, 20대와 30대 부모들은 대다수가 영아의 전인발달을 위해 전래놀이노래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 부모와 함께 하는 영아기 전래놀이노래가 중요한 이유 빈도(%)

	아버지	어머니	20대	30대	40대	전체
한국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31(21.7)	15(5.3)	2(1.1)	6(3.8)	38(40.8)	46(10.9)
영아의 전인 발달을 위해	33(23.1)	254(90.1)	149(84.7)	108(69.3)	30(32.3)	287(67.5)
영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79(55.2)	13(4.6)	25(14.2)	42(26.9)	25(26.9)	92(21.6)
계	143(100.0)	282(100.0)	176(100.0)	156(100.0)	93(100.0)	425(100.0)
통계치	$X^2=199.2, df=2, p<.001$		$X^2=131.8, df=4, p<.001$			

## 2.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에 대한 부모들의 적용실태

영아기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전래놀이노래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464명의 응답자 중 22.6%만이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부모들(77.4%)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부모의 성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001$ ). 40대의 부모보다는 30대, 20대의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전래놀이노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표 4> 참조).

영아기 부모들이 전래놀이노래를 많이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해본 결과는 표5와 같다. 표5에 의하면 ‘다양한 전래놀이노래의 방법을 몰라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50.9%), ‘자녀와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인 경우도 31.8%나 되었다. 전래놀이노래가 교육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7.3%에 불과했다. 이러한 응답은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의 성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1$ ).

<표 4> 부모들의 영아기 전래놀이노래 적용 정도 빈도(%)

	아버지	어머니	20대	30대	40대	전체
적용한다	46(27.7)	59(19.8)	8(4.0)	21(12.8)	76(76.8)	105(22.6)
적용하지 않는다	120(72.3)	239(80.2)	193(96.0)	143(87.2)	23(23.2)	359(77.4)
계	166(100.0)	298(100.0)	201(100.0)	164(100.0)	99(100.0)	464(100.0)
통계치	$X^2 = 3.7, df = 1, p>.05$		$X^2 = 214.7, df = 2, p<.001$			

<표 5> 영아기 전래놀이노래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빈도(%)

	아버지	어머니	20대	30대	40대	전체
전래놀이노래의 방법을 몰라서	49(40.8)	134(56.1)	108(56.0)	64(44.8)	11(47.8)	183(50.9)
교육적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19(15.8)	43(18.0)	31(16.0)	27(18.8)	4(17.4)	62(17.3)
자녀와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52(43.4)	62(25.9)	54(28.0)	52(36.4)	8(34.8)	114(31.8)
계	120(100.0)	239(100.0)	193(100.0)	143(100.0)	23(100.0)	359(100.0)
통계치	$X^2 = 11.4, df = 2, p < .01$		$X^2 = 4.3, df = 4, p > .05$			

아버지들은 자녀와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전래놀이노래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43.4%), 어머니들은 다양한 전래놀이노래의 방법을 몰라서 적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56.0%)가 가장 많았다.

끝으로 부모들이 전래놀이노래를 자녀들과 함께 즐기는 경우 영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부

모들의 응답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대다수의 영아들(82.9%)이 흥미로와 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즉, 영아기 전래놀이노래는 영아기 부모들에 의해 많이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영아들은 그들의 발달단계에 적절한 전래놀이노래를 부모들과 함께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전래놀이노래 적용시 영아들의 반응

유아들의 반응	재미있어 한다	하기 싫어 한다	전체
빈도(%)	87(82.9)	18(17.1)	105(100.0)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과 적용실태는 어떠하며, 인식과 적용실태가 부모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한국의 영아기 전래놀이노래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에 따른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은 지금까지 발굴되어진 13가지

영아기 전래놀이노래 중에서 ‘ 짹짹’, ‘도리도리’, ‘곤지곤지’, ‘잼잼’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전래동요가 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굴·전승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전원범(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영아기 전래놀이노래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30대와 40대 부

모들이 20대 부모들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부모들은 '한국의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유아의 전인발달을 위해서' 부모와 함께 하는 영아기 전래놀이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들은 유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전래놀이노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20대와 30대 부모들 보다는 40대 부모들이 한국의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전래놀이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홍용선(1989)의 연구, 한국의 현대 젊은 층은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심우성(1996)의 지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영아기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전래놀이노래를 적용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40대 부모보다 30대와 20대의 젊은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전래놀이노래를 더 많이 적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서양문화의 잠식에 의해 한국의 전래놀이노래가 점차 젊은 사람들에게 구식놀이방법이라 하여 도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한 김숙경(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부모들은 다양한 전래놀이노래의 방법을 몰라서 적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전래놀이노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자녀교육에 전래놀이노래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자녀와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전래놀이노래를 많이 적용하고 있지 못한 부모들도 있었다. 특히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인 경우에 시간문제를 많이 지적하였다. 이는 현대의 아버지들이 자녀와 놀아줄 마음은 충분하나,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 허선자(1992)의 연구와 일치한다.

영아들은 그들을 위한 전래놀이노래를 부모들

과 함께 즐기는 것을 매우 흥미로와 하고, 재미있어 하였다. 이는 전래동요에 대한 유아의 선호도를 분석한 김세희(1994)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김세희(1994)는 유아교육기관의 만 4,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영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공통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결론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은 전래놀이노래가 영아의 전인발달을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 다만, 전래놀이노래가 잘 전승되어지지 않아 현대의 부모들이 알고 있는 전래놀이노래는 단지 몇 가지에 불과하며, 특히 젊은 층 부모들은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 없이 자녀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전래놀이노래를 보다 많이 발굴하여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부모교육자들은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부모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넣어주는데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아기 전래놀이노래를 영아들은 매우 즐거워하고 흥미 있어 하나, 젊은 부모들은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시간이 없어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자신의 뿌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면서 교육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전통놀이노래가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영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자들은 연령에 적합한 전래놀이노래의 중요성과 방법을 부모교육을 통해 젊은 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부모들이 자녀와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들도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자녀와 전래놀이노래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2).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2-15호. 교육부.
- 교육부(1998).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8-10호. 교육부.
- 김경희(1986). 전통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세희(1994). 한국 전래동요에 대한 유아의 선호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숙경(1997). 한국 전래놀이노래. 서울 : 이진출판사.
- 김시아(1998). 전래놀이동요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정준(1996). 전래동요를 중심으로 한 Orff 리듬활동의 통합적 접근. 인간발달연구, 24, 49-66.
- 박수정(1996). 전래동요 지도방안 연구 - 코다이 방법에 의거하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신동주(1998). 유아 전통놀이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아동학회지, 19(1), 141-154.
- 심우성(1996). 우리나라 민속놀이. 서울 : 동문선.
- 엄정애(2000). 중국 조선족 유치원 교사들의 한국 전통놀이에 대한 인식 및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0(2), 53-67.
- 유안진(1981). 한국 고유의 아동놀이. 서울 : 정민사.
- 이경우, 이은화(1987). 한국 어린이의 전통적 집단놀이에 관한 연구조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이경우, 이은화(1994). 한국 전래동요의 재발굴 및 통합적 활용에 대한 연구. 인간발달, 22.
- 이기현(1987). 아동이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에 관한 연구. 어린이 연구, 23, 9-27.
- 이순형(1991). 놀이노래 가사의 실태와 가사의 전통성 조사. 아동학회지, 12(1), 68-77.
- 이순형(2000). 중국 연변 조선족 어린이들의 놀이와 놀이노래 조사 연구. 아동학회지, 21(3), 69-83.
- 이은화(1989). 전통놀이의 유아교육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은화, 이경우, 이정환(1993). 유아전통놀이 교육활동 지도자료. 교육부.
- 이은화, 홍용희, 조경자, 엄정애(2000). 한국의 전통 아동 놀이. 2000년도 삼성복지재단 연구과제 답신 보고서.
- 이지연(1995). 전래동요와 창작국악 동요의 음악적 비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이희경(1996). 유아 전래동요 교육의 실제. 유아교육, 19, 85-103.
- 장은주(1997). 노래 그림책이 유아의 읽기 및 음악적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전원범(1995). 한국전래동요연구. 서울 : 바들산.
- 정미라(1992). 유치원 교육활동에서의 한국 전래동요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홍용선(1989). 한국교육이 추구하는 인간특성.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